



SK 전희철 감독이 2023년 5월 7일 경기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7차전 안양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빅리그 최정상 외야수” 현지서도 인정한 이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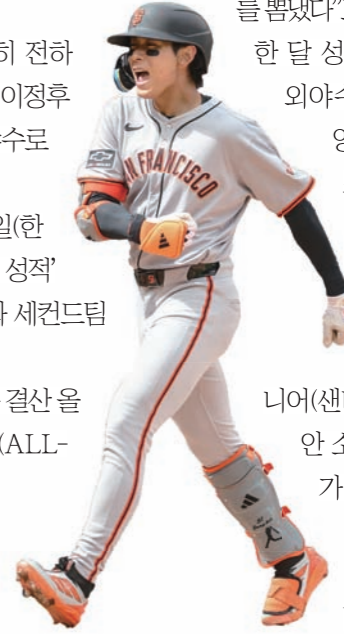
MLB닷컴 “11개 2루타로 NL 공동 1위… 장타 기계 면모”

2025년 미국프로 야구 메이저리그 (MLB) 개막 후에 한 달 동안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는 MLB가 주목하는 외야수로 자리매김했다.



MLB닷컴은 “이정후는 지난달 28일 까지 타율 0.324, OPS(출루율+장타율) 0.930을 올렸다”며 “11개의 2루타를 쳐이 부분 내셔널리그(NL) 공동 1위다. 3루타 2개, 홈런 3개도 치며 장타 기계의 면모를 뽐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정후의 소식을 꾸준히 전하는 MLB닷컴은 또 한 번 이정후를 빅리그 최정상급 외야수로 인정했다.



MLB닷컴은 지난달 30일(한국 시간) ‘개막 후에 한 달 성적’을 기준으로 올 MLB팀과 세컨드팀 후보를 선정했다.

한 달 성적 기준으로 퍼스트팀 외야수로는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 코빈 케럴(에리 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카일 터커(시카고 컵스)가 뽑혔고, 세컨드팀 외야수에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후안 소토(뉴욕 메츠), 이정후가 선정됐다.

MLB는 2019년부터 시즌 결산을 스타 성격의 ‘올 MLB 팀’(ALL-MLB Team)을 선정한다.

전문가와 팬 투표에서 각 포지션 최고점(선발 투수는 5명, 불펜 투수는 2명, 외야수는 3명)을 받은 선수들을 퍼스트팀으로 뽑고, 차점자들은 세컨드팀으로 분류한다.

KBO리그 최고 타자로 올라선 뒤, 2024년 6년 1억13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하며 빅리그에 입성한 이정후는 지난해에는 어깨 부상에 37경기만 뛰며 타율 0.262, 2홈런, 8타점, 15점, OPS 0.641의 성적을 남기고 조기에 시즌을 마감했다.

이정후는 세컨드팀 외야수 한자리를 꿰찼다.

2년 만의 우승 찬스… “다신 울지 않으리”

2023년 5월 7일은 프로농구 서울 SK를 이끄는 전희철 감독에게 잊을 수 없는 날로 남았다.



이날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결정전 7차전에서 전 감독의 SK는 안양 KGC 인삼공사(현 정관장)와 연장 끝에 97-100으로 패했다.

염원했던 우승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됐다. 사실 2022-2023시즌 전 감독과 SK가 가장 우승에 가까이 간 순간은 이를 전에 열린 6차전이었다.

3승을 먼저 챙긴 SK는 6차전 3쿼터 종료 2분 전 67-52로 멀리 달아났다.

상대 3점이 림을 외면하는 가운데 자밀 위니의 3점은 깨끗하게 그물을 갈랐다. 경기 주도권이 완전히 SK 쪽으로 넘어갔다.

KGC인삼공사를 지휘한 김상식 감독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나타났다. 그런데 갑자기 흐름을 끊는 버저가 울렸다. 아대로 리드를 유지하기만 하면 우승을 확정하는 SK의 전 감독이 작전시간을 요청한 것이다.

몰아치던 SK의 기세는 식었고 속수무

전희철 SK감독 필승 절치부심

2023년에 7차전 연장승부 쓴잔

시즌 내내 선수단 의욕 관리 철저

LG에 “SK 알보지말라” 불쾌감도

책으로 당하던 인삼공사는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다.

주포 오마리 스펀맨 대신 대릴 먼로를 중심으로 공격을 재편한 인삼공사는 4쿼터를 30-10으로 압도해 베팅 끝에서 살아 돌아왔다.

86-77로 이긴 인삼공사는 7차전 연장 승부 끝에 최종 승자가 됐다.

전 감독은 7차전이 끝난 뒤 눈물을 흘렸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동안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자책감에 괴로워한 그는 “6차전에서 내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다”며 “고생한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했다.

전 감독과 SK가 다시 챔피언결정전 무대를 밟는 데 2년이 걸렸다.

지난 시즌 줄부상에 신음한 SK는 우승 팀 부산 KCC에 밀려 6강 플레이오프(PO)에서 떨어졌다.

선수단 개편 없이 다시 도전장을 던진 전 감독은 올 시즌에는 41승(13패)을 챙겨 정규리그 우승을 이뤘고, 4강 PO에서도 수원 kt를 3승 1패로 제압해 창원 LG와 7전4선승제로 치러지는 챔피언결정전으로 향한다.

SK가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정규리그와 PO를 치른 건 전 감독이 노련하게 선수단을 관리한 덕이다.

SK에서는 주전 3명(김선형·안영준·오재현)이 올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얻고, 주포 위나는 올 시즌이 KBL에서 마지막이라고 공언한 상황이다.

팀 승리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대접받아 마땅한 선수인지 코트에서 증명하고픈 예비 FA들의 욕심을 억누르고, 선수단 전반의 의욕을 고취하는 일이 시즌 내내 전 감독의 숙제였다.

전 감독은 4강 PO에서 팀플레이보다 개인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 중 선수들을 맹비난하더니 내부 회의에서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안영준은 지난달 25일 4강 PO 2차전이 끝난 뒤 “감독님께서 때리는 것 빼고는 다 하셨다”고 말했다. 때로는 선수들을 달래고, 때로는 억박지르면서 챔피언전에 도달한 전 감독은 이제 우승만 바라본다.

전 감독의 챔피언전은 SK가 4강 PO를 통과한 순간부터 시작됐다.

전 감독은 지난달 29일 kt와 4강 PO 4차전 69-57 승리를 지휘해 챔피언 진출을 확정짓고 “LG는 왜 SK를 우승케 보느냐. 기분이 나쁘다”라며 일찍부터 장외 신경전을 시작했다.

울산 현대모비스를 3연승으로 따돌리고 챔피언전에 선착한 창원 LG 구성원들이 ‘SK가 더 수월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마지막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전 감독은 “조상님 감독에게 전화해서 SK가 뭐가 쉽고 물어봐야겠다. 미디어데이 때도 ‘SK의 쉬운 점 3가지를 대보라고 하겠다. 감독이 쉬운지, 위나가 쉬운지, 속공이 쉬운지’라며 꼬집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얼굴에 공 맞은 전민재 “가벼운 찰과상 소견”

프로야구 타격 1위를 달리는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전민재(25·사진)가 큰 부상을 피했다.



전민재는 지난달 2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키움 투수 양지율의 투구에 얼굴 부위를 맞고 경기에서 빠졌다.


롯데 구단은 지난달 30일 “전민재가 두 차례 검진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고령대 구로병원 검진 결과 골절 소견은 없고, 가벼운 찰과상 소견을 받았다”면서 “오늘은 국립중앙의료원 인과 외상 전문의에게 진료받은 결과, 각막과 망막에는 이상이 없다. 우측 안구 전방 내 출혈이 있어서 7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을 입은 전민재는 이번 시즌 30경기에서 타율 0.387(93타수 36안타)로 맹활약을 펼쳐 롯데의 상승세를 이끈 선수다.


전민재의 활약 덕분에 롯데는 단숨에 수년 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던 유격수 문제를 해결했다.

전민재는 지난달 29일 고척 키움전에서 3타수 2안타로 맹타를 휘둘렀으나 7회 2사 12루에서 양지율의 몸쪽 높은 공에 맞았다.

트레이드를 통해 올 시즌 롯데 유니폼



대동택견 선수자 과정 1기 모집 안내



1. 택견 어원

택견의 어원은 태갈이다. <태>는 태어나다·중생하다는 뜻이고, <갈>은 가르치다·수련하다는 뜻으로 이를 합치면 ‘인간에서 신으로 중생하는 수련’을 말한다. 씨름이 오랜 세월 동안 씨갈→씨가름→씨겨름→씨름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듯이 택견도 태갈→태가름→태겨름→태견(태견)→택견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다.

2. 대동택견 소개

- 태고사에 나오는 천제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도록 준 천부인(天符印) 원리에 입각한 고유 무예(위대 택견 기능)
- 무예 역사와 전승 계보(삼성조 시대 - 북부여 - 삼국시대 - 일본 천황가 전래 - 신라삼랑 원의광(대동 택견 중시조) - 원정의(35대) - 덕암 최용술(36대) 환귀본주 - 한울 김정윤(37대) 명확한 전통 무예)
- 한민족 정서에 녹아드는 우아하고 수려한 몸짓과 가장 방대하고 강력한 기술 체계를 갖춘 완전 무예(아래대 택견 기능)

3. 선수자 과정 개설 목적

- 단군 임검의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이념 실천
- 삼성조 시대부터 7세기까지 수려한 전통 태갈 수련법(위대 택견) 전수- 단군 임검 탄생역사에 나오는 환웅(桓雄)·웅녀(熊女)·신단수(神檀樹)·호(虎)·웅(熊)·애(艾)·산(蒜)·굴(窟)·백일(百日)은 인간이 신으로 중생하는 태갈 수련법이나 후대에 한자로 기록되면서 인수(人獸)의 역사로 왜곡됨
- 조선시대 승문천무(崇文踐武) 정책과 일제의 민족혼 말살 정책으로 사라진 택견의 맨몸 기술 보강과 무기술 복원(아래대 택견)

4. 선수자 과정 모집 일정

- 주 최: 대동택견협회(협회장 신성준)·명지대 명성무예학과(우종웅 교수)
- 장 소: 명지대학교 미래관 6층
- 일 자: 2025.3.29.~6.14(12주) 매주 토요일 09:00~12:50
- 인 원: 선착순 10명
- 대 상: 체력훈련(힘)이 아닌 무예기법(기운) 원리를 익히는 수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 등 록: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 미래교육원 → 등록안내 → 전문교육과정 → 신규학습자(원서접수 바로가기)
- 문 의: (02) 300-1816